

AUTHOR 홍반석

TITLE 칼빈주의와 교회합동운동

IN 개혁주의

vol. 14 (June, 1966): 3-5,13

칼빈主義와 教會合同運動

철학박사 홍 반 식

칼빈주의란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사상을 이어받은 복음주의적 신앙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 칼빈의 신학사상을 따르는 신앙체계는 보수주의적 개혁파 교회나 장로교 계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세계 교회 합동 운동의 상징과 같이 되어 있는 세계 기독교 연합회는 현대 교회의 외형적 단합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지상 교회의 분열은 예수의 몸을 찢는 일이라고 교파의 난립은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상교회 분열은 현대에 있어서 교리와 신앙을 무시하고 외형적인 합동만을 위주로 하는 교회 합동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류하는 복음주의 교회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교회 합동 운동에 대하여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칼빈 자신이 가졌던 교회관과 칼빈 사상을 이어 받은 복음주의 교회가 가지는 태도를 살펴 봄으로써 알게 될 것이다. 세계기독교연합회, (W. C. C.)의 교회 합동에 대한 기본원리는 외형적 단합에 있다. 요한복음 17:21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란 말을 내세우면서 교회의 단합은 제도로서의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로써

단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외형적 단합주의는 로마천주교의 주장과 비슷하다.

로마교에서는 교회를 하나의 조직체(institution)로 보고

교회의 단일성(單一性)을 주장하면서 이 단일성을 지닌 교회가 로마교회이며, 로마교회가 즉 거룩한 카톨릭교회(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말한다. 로마교회가 주장하는 교회의 단일성은, 첫째로 그 신앙의 단일성, 둘째 교리의 단일성, 셋째 예배의식의 단일성, 넷째, 교회의 머리로서 법왕이 가지는 최고 지배권의 단일성, 다섯째 사랑의 생활과 은혜의 단일성 등이다. 로마교회는 단일성 있는 하나님의 우주적인(Catholic) 교회를 독점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교 울타리 밖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왕 요한 23세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최식 식사를 통해 바티칸은 천주의 지상교회 총본부이며, 전 세계에 대한 최고 명령 계통이 거기에 있고, 그 권세의 계통이 단일화 되어 있는 것을 말하였다.

칼빈주의에서는 교회의 진정한



단합 또는 그 단일성(單一性)을 지상교회에다 두지 않고, 불현교회(不顯敎會)에다 둔다. 하나님의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The Holy Catholic Church)는 하나님이고, 이 카톨릭교회는 지상의 제도나 조직체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진정한 신자의 단체인 것이다.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교회란 말은 「큐리아콘」 또는 「엘클레시아」란 말인데, 「큐리아콘」은 "주님의 집"이란 뜻이고 「엘클레시아」는 "불러움을 받은 자들의 단체"를 의미한다. 이 명사들은 모두 제도나 조직체를 표시할다가보다는 하나님에게 속한 신자의 모임을 뜻한다고 봄이 가하다. 구약에 있어서 신약교회의 상징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단체를 「에에다」 또는 「카할」이라고 했는데, 이 두 명사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니 신약의 「큐리아콘」이나 「엘클레시아」와 통하는 점이 있다. 교회의 진정한 단합은 예수님과 신자 사이에 이루어진 신비적 결합으로 성취된다. 여기에는 도성인신(道成人身)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주 되신다는 객관적인 방면과 이 구주에 대한 신앙과 중생으로 신자에게 이루어진 주관적인 방면이 조화를 이루는데서 진정한 단합이 가능한 것이다. 현대의 「에큐메니칼」 운동에서는 교회의 단일성을 지상 교회의 외형적인 단합에다 두기 때문에 교파의 존재를 죄악시하고 교파의 난립은 예수의 몸을 찢는 일이라고 한다.

로마교에서는 신교의 교파 존재를 정죄하고 로마교회의 품, 소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 와야 된다고 한다.

교파의 존재가 범죄 행위나 아니냐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교파 형성의 동기와 성격에 따라서 범죄 행위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범죄 행위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기성 교단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길로 나갈 때는 마땅히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이다. 구원에 관계된 큰 교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리적 의견 차이로써 항상 논쟁만을 거듭하기보다는 바로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지리적 형편으로도 교파의 존재가 필요할 것이니, 개혁교나 장로교는 구라파라 미국 또는 호주 등지에서 거의 같은 교리와 신조를 가지고 있지만, 지리적 또는 민족적 형편으로 각이한 교파를 가진다고 해서 범죄 행위라 할 수는 없다.

칼빈주의는 교회의 진정한 통일을 불현교회에다 둔다. 그러나 지상교회의 단합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칼빈 자신의 태도를 살펴 볼때 그가 주의 몸된 교회의 단합을 얼마나 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 종교 개혁 당시에 칼빈이 당한 쓰라린 경험은 여러가지의 원인이 있겠으나 교회의 분열에 관한 것과 신앙 동지끼리 여러가지 의견 차이로써 단합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천여년동안 서방교회를 지배하여 온 로마교회의 신앙을 떠남에 있어서 큰 단체에서 떠난다는 고적감과 로마교의 알력에 의한 여러가지 상심으로 그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무거워 짐을 성경에 확실한 근거를 둔 이신득의(以信得義)의 신앙과 성신이 주시는 위로의 힘이 아니었던들 견디기 어려웠으리라,

거기에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개혁운동에 참가한 동지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로써 행동의 분열까지 초래했을 때 칼빈의 상심은 더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칼빈은 교회 합동을 위하여 부절히 노력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신앙동지들에게 보낸 수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강요(基督教綱要) 제4권에 교회론을 취급함에 있어서 교회의 단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말하고 있다. 칼빈은 영적 불현 교회의 통일을 말하는 동시에 지상교회 단합도 신중히 취급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교회를 분열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한다(基督教綱要W1:4). 칼빈이 「사도레도」(Sadoleto)에게 보낸 서신중에 그가 하나님의 교회합동을 위하여 교백한 기도의 한 구절은 유명하다. “주여 당신의 진리의 피로써 결합된 주님의 교회의 단합을 위한 나의 불 붙는 열심이 얼마나 강하였던 것은 나의 양심이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과 멜랑톤(Philip Melancton) 사이에는 예정도리에 대하여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칼빈은 교회의 단합을 위하여 멜랑톤으로 더불어 우호관계를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이다. 칼빈이 멜랑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몇부분만 들어보면, “나는 우리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일터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 우정이 상처를 입음에 있어서는 교회에 큰 상처를 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은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들 사이의 분열은, 마치 우리가 법왕파에 고용이나 될 것처럼 그들에게 얼마나 즐거운 장난거리가 되며 위로줄 주는 일이 되겠습니까?” 칼빈과 루터 사이의 의견 차이는 큰 것으로, 칼빈과 다른 개혁자 사이에 있었던 교리적 의견 차이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들 사이의 의견 차이는 상당히 컸기 때문에 칼빈도 그들들 사이의 분열을 방지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칼빈은 루터에게 존경과 화평의 태도를 보였다. 칼빈이 루터에게 보낸 단 한번의 편지는 그가 교회의 평화를 대단히 사랑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만일 내가 그대에게 날아 갈 수 있다면 그때의 사회에서 몇시간이라도 같이 하는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그대의 얼굴을 대하여 의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이 불가능한 줄 알고 불원한 장래에 하늘 나라에서 그 일이 이루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원컨대 주님께서 만 인간의 복리와 그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성령으로 그대를 끝까지 불들이 주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이와 같이 교회의 단합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드러운 태도로 대하지만 교회의 근본 요소가 유린 당할 때 그는 비타협적인 강한 발언을 했다. 그는 법왕권의 교회 지배를 반대하는 말로 “법왕의 법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Genevan Confession Arts. 18, 19)라고 했다,

<13페이지에 계속>

사도신경 연구의 필요성

목사 임종만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전도 내용을 뽑아 엮은 신앙교백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중에 있는 중요한 교리만 뽑아 엮은 교리문서이다. 물론 우리들은 성경과 교리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다만 그 교리가 성경에 부합할때만 그것을 진리로 받는다. 사도신경을 성경과 대조해 보면 한 마디 한 마디가 성경진리를 뽑아 옮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진리탐구는 바로 성경의 진리탐구와 같은 것이다. 현대의 많은 기독교신자 중에는 사도신경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하여 배척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내세우고 무엇이냐고 하든지 어떻게 믿든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도신경을 시대에 뒤 떨어진 것이라 하여 배척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같이 사도신경은 성경중에 있는 중요한 교리만 뽑아 엮은 신앙교백문이므로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그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시하여 가르치는 진리문서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시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를 세상에 소개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과연 그렇다. 예수님 자신도 요 5:39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요, 성경의 중심 교리를 뽑아 엮은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1949년 11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스위스의 신신학자 「에밀·부른너」박사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교장 「마카이」박사 두 분이 서울에 와서 집회를 가질 때 환영받은 일이 있다. 물론 한국 교회 전부는 아니었다. 그 때 「부른너」박사가 공개한 말 중에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정통파에서는 성경을 우상화 한다. 나는 사도신경이나 어느 신조도 순종하지 않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에도 나는 순종치 않으려고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유대인이 가졌던 견해이다. 문자적 영감은 비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다. 현대의 청년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 얼마나 외람된 망언인가? 성경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또 성경의 중심교리를 뽑아 엮은 사도신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거짓인 것이다. 이상의 말로 생각할 때 성경과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의 구주로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교리를 뽑아 엮은 사도신경을 진리의 신조로 확신하고 힘과 마음을 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영주동교회시무: 교리 신학교 연구과>

비신화화 반대 운동

독일 복음교회(FRID)의 목사들과 평신도들로 구성된 큰 단체가 독일의 문예 신학자인 볼트만(Rudolf Bultman) 교수가 부르짖는 신약의 비신화화(Entmythologisierung)를 반대하는 운동이 커 가고 있다. 100명의 목사가 주동으로 된 "성경과 신앙교제를 위한 행동위원회"가 교회의 교리와 신교를 위한 18개조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중에는 현대신학이 단순히 실존주의 철학의 멧세지로 변질되어간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볼트만교수만이 아니라 반나치 운동의 선봉에서 일찍 죽음을 당한 본회파(Dietrich Bonhoeffer)목사와 작년에 세상을 떠난 릴리히(Paul Tillich)교수의 신학을 반대하고 있다. 이 운동의 의장단에는 블뤼멜(Walter Bluemel)학장과 바를즈(Erich Warmer-s)목사라고 한다.

신문광고도 못내게 하는 로마교 대 주교

중미의 한 공화국인 코스타 리카(Costa Rica)의 수도인 산호세(San Jose)에 있는 한 신문에 리교회 부총집회에 대해서 돈을내고 광고를 내었는데 대주교 로드리페즈(Archbishop C. H. Rodriguez)는 여기해 대해 반대성명을 내었다. 그 요지는 로마교단이 전리를 소유하고 있고, 교회연합과 종교자유를 허용할때만 모든 종교는 좋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돈내고도 신교는 광고를 낼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주교도 참다운 종교자유는 도리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

목사들의 현지 교육

미국 핏츠버그(Pittsburgh) 근방에서는 과거 3년동안 약 300명의 목사가 오하이오(Ohio)주의 칸톤(Canton)의 95명의 목사와 함께 핏츠버그 신학교에서 8주간 계속되는 현지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격동하는 세대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

<5페이지에서 계속>

현대에 있어서 I.C.C.C. 또는 N.A.E. 등 복음주의 교회의 세계연합 조직체가 적지 않으며 좀더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단에서도 세계적으로 연합운동을 일으킨 사실들을 볼 수 있다. 장로교 세계연맹(The world Presbyterian Alliance)은 1875년에 창설된 단체인데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와 개혁신교의 세계적 단결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55개국에서 참가한 66교단으로 구성된 것이다. 개혁신교 국제회의(International Reformed Congress)는 1932년 영국 런던에서 발족을 본 것인데 개혁신교의 세계적 단결을 도모한 단체였다. 개혁신교의 에큐메니칼 대회(Reformed Ecumenical Synod)는 1953년 영국 에딘바라에서 발족하여 현재도 존속하는 단체인데 세계에 산재한 칼빈주의적 교단들의 우호관계와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이다.

<p>교육대회 소집에 관한 공고</p> <p>귀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다음과 같이 제2회 교회교육 연구대회를 가지겠으나 각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심을 바랍니다.</p> <p>기 시일 : 1966년 8월 15일(월)~17일(수) 곳 : 고려신학교 (부산서 서구 압남</p>	<p>동 34)</p> <p>주요행사 : 강연, 연구발표, 본과토의, 가지방보고, 교육영화감상</p> <p>참가인원 : 교역자와 자주일학교 대표 1인(여비는 각 교회부담)</p> <p>입회비 : 50원, 식비는 매식 30원</p> <p>휴대품 : 성경, 찬송, 노트, 담요(침대 제공)</p> <p>1966년 6월 30일</p> <p>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윤봉기 총회종교교육부장 오병세</p>
---	---

「웨스트 민스터」大要理 問答譯文(八)

신학박사 이 균 삼 역

- 문(三十六) 은혜계약의 증보자가 누구입니까?
 답 : 은혜계약의 유일하신 증보자는 성부 하나님과 동질이며 동등하신 (Γ)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L)이신데 폐가 차서 사람이 되시고(C) 또 그렇게 계속하시되 완전히 다른 두 성품을 가진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영원히 한 인격이십니다(κ).
- (Γ)요 1:1, 10:30, 빌 2:6, (L)딤후 2:5, (C)갈 4:4 (κ)눅 1:35, 롬 9:5, 골 2:9, 빌 2:5-11
- 문(三十七)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었습니까?
 답 :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된 몸과 이성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Π)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그녀의 본질을 가지고 그녀에게서 났으나(Η) 죄는 없었습니다(Α), (Π)요 1:14, 마 26:38, (Η)눅 1:31, 35, 42, 갈 4:4, (Α)히 4:15, 7:26
- 문(三十八) 왜 증보자는 하나님이어야 하였습니까?
 답 : 증보자가 하나님이어야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로와 죽음의 세력아래 빠져가는 인간성을 거기에서 유질하며 지키고(Ο) 그의 고난과 순종과 대도(代贖)에 가치와 효과를 주며(Ζ) 하나님의 의를 만족케 하며(Υ) 하나님의 총애를 얻고(Ψ) 천백성을 피로 사서(Ε) 저희에게 성령을 주고(Φ) 저희 원수들을 정복하고(Θ) 저희를 영원한 구원에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Γ), (Ο)행 2:24, 롬 1:4, (Ζ)행 20:28, 히 9:14, 7:25-28, (Υ)롬 3:24-26, (Ψ)엡 1:6, (Ε)디도 2:14, (Φ)요 15:26, 14:26 16:7, (Θ)눅 1:69, 71, 74, (Γ)히 5:9, 9:11-15
- 문(三十九) 왜 증보자는 사람이어야 하였습니까?
 답 : 증보자가 사람이어야 한 것은 그가 우리의 성품을 항상시키고(L) 율법에 순종하여(C) 고난을 받고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고(κ), 우리의 언약을 동정하시는 분이여야 하며(Π) 또 우리는 양자됨을 얻고(Η), 위로를 받으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Α)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L)눅 2:16, (C)갈 4:4, 롬 5:19, (κ)히 2:14, 7:24, 25, (Π)히 4:15, (Η)갈 4:5, (Α)히 4:16
- 문(四十) 증보자는 왜 한 인격안에 하나님과 사람이어야 하였습니까?
 답 : 하나님과 사람이 확복케 하실 증보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이어야 하며, 이것이 한 인격안에서라야 하였고, 각 성격의 고유한 일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Ο), 완전하신 인격자의 일로서 우리가 의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Ζ).
- (Ο)마 1:23, 3:17, (Ζ)벧전 2:6